



법원행정처 2025년 제작 법교육 동영상 활용 안내

2026. 4.

사법지원실[사법정책심의관실]

1. 제작 의도

-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관련 책자의 발간·교부를 진행하여 왔고, 2025년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용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였음
-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법제도와 재판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, 이를 통해 합리적 법의식을 가진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

2. 활용 요청 콘텐츠 개요

가. 콘텐츠 개요

- 콘텐츠 명칭: “찰리와 함께 하는 재판이야기”
 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용역, 법원행정처 발간 법교육 교재 「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재판이야기」 제1, 2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함
- 콘텐츠 형태: 애니메이션 동영상 4편(편당 5분 내외)
- 캐릭터 소개[별지 참고]
 - 찰리(정의의 별에서 온 법조 마스터이자 K-한류 팬)
 - 수호와 지율에게 재판에 대해 알려주는 해설자 역할
 - 수호(초등학교 남학생, 11세)
 - 정의감이 강한 아이로, 지율의 억울한 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
 - 지율(초등학교 여학생, 11세)
 -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로서, 이후 법에 대한 이해, 책임감, 용기를 가지게 됨



▣ 편별 주제 및 주요 내용

● 제1화 : 왕의 재판에서 오늘의 법정까지

- 정의의 별에서 온 찰리가 초등학생인 수호와 지율에게 고대 왕의 재판에서 오늘날 사법제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함

● 제2화 : 법정의 숨은 원칙

- 증인소환장을 받고 긴장한 지율과 수호에게 헌법상 재판청구권, 공개재판의 원칙, 삼권분립, 3심제에 대하여 설명함

● 제3화 : 재판은 모두 같지 않아요.

- 증언을 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율과 수호에게 재판의 종류 및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절차상 차이점을 설명함

● 제4화 : 판사님과의 두근두근 만남

- 판사로서 가져야 할 소양과 태도, 공정한 재판을 향한 의지를 배움

나. 활용 방법

▣ 각 초등학교 담임교사 등이 사회 과목 교육 등에 활용 가능

- 콘텐츠가 게시된 유튜브 채널 또는 법원 TV의 링크(URL 또는 쿼알코드)가 삽입된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공 ⇒ 교육청 및 각 초등학교에 공문 전달
- 내용은 초등학교 3~6학년 정도까지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난이도임

▣ 특히 애니메이션 콘텐츠이므로, 비대면 교육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

다. 협조 요청 사항

- ▣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및 홍보 시 적극 활용
- ▣ 활용 사례가 있을 경우 공유 요청

라. 문의처

- ▣ 담당부서 :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
- ▣ 담당자 : 권라운 사무관(연락처 02-3480-1262, hyeon@scourt.go.kr)



[별지 1] 찰리와 함께하는 재판이야기 캐릭터





[별지 2] QR코드



1편		2편	
자막본 	수어영상본 	자막본 	수어영상본 
3편		4편	
자막본 	수어영상본 	자막본 	수어영상본 